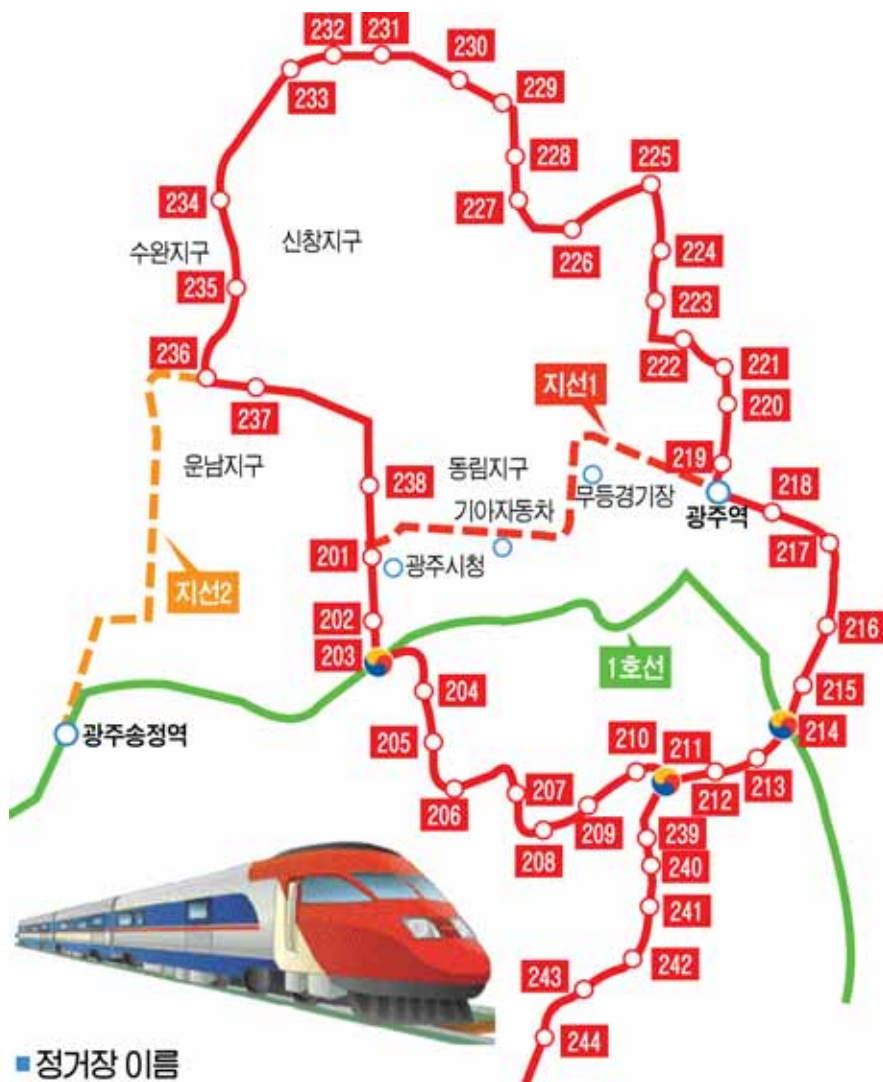


재정위기·미래세대 대책 고민...토론 통해 시정현안 결정

재검토서 재건설까지... 5개월 논란 의미와 남은 과제

TV토론회·공청회 등 시민 뜻 물어 확정 반대 여론 설득·막대한 예산 확보 난제



■ 정거장 이름

No	역명(예정)	정거장 위치(예정)	No	역명(예정)	정거장 위치(예정)
201	시창역	시창	223	광주공고역	광주공고
202	운천초교역	운천초교	224	우미APT역	삼각그린타운APT
203	상무역(환승)	상무역	225	안일역	일곡병원
204	북촌역	금호초교	226	OB맥주공장역	본촌공단
205	금호역	금호중/호반APT	227	지산역	롯데칠성공장 인근
206	광저우역	빛고을 전수관 인근	228	지산4가역	양산 우체국 인근
207	종합운동장역	월드컵경기장	229	철단역	용두초교
208	회재역	우미APT 인근	230	철단승마클럽역	철단2지구
209	회재4가역	원광대병원입구	231	요양병원역	정부합동청사 인근
210	독립역	주말2동주민센터	232	우산역	철단4거리
211	백운역	백운광장	233	리안역	용암공원
212	대남역	남광주농협	234	수원역	수원2차 우미APT
213	남광역	남부경찰서입구	235	수원호수역	호수공원/수원지구
214	남문역(환승)	남광주역	236	하남역	수원주공3단지 인근
215	조선대역	조선대	237	운남역	운남주공APT 인근
216	법원역	지산 사거리 인근	238	유덕역	유촌동
217	호남시장역	두암지구 입구	239	서문역	대광역고
218	서방시장역	교육대학/서방시장	240	대역APT역	진월초교
219	서암역	광주역	241	동성중역	진월동 현대APT
220	전남대역	북구청/전남대후문	242	백암관예식장역	광주대/효덕C
221	우치로역	전남대교수APT	243	송암공업단지역	송암공단
222	오치주공APT역	오치주공1단지	244	화방교역	효천역

윤장현 광주시장은 1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직원 정례회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5개월간은 시의 재정에 위기가 없는지,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시민과 함께 토론했고 학습하는 기회였다”면서 “유럽의 경우 한 시설을 만드는 데 7년간의 토론 끝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제는 광주 공동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2호선 등) 의제에 대해 더 이상 (시정) 수뇌부 몇 사람에게 의해 결정되고 추진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시장이 지난 7월 민선 6기 광주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2호선 재검토에 나선 이유를 설명한 대목으로, 공직사회의 이해를 당부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 5개월간 진행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 정책이 남긴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살펴봤다.

◇2호선 재검토부터 재건설 결정까지 =윤장현 광주시장은 당선 직후 인수위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

점에서 재검토해보겠다”는 것이 지난 5개월간 윤 시장의 일관된 표현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검토 TF팀이 구성돼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건설 또는 중단, 연기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됐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시장은 결국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의견을 묻기로 하고 TV토론회를 비롯한 시민회의 개최 등을 진행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시의 재정난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은 이해했지만, 교통 복지 등을 위해서는 2호선 건설을 우선 순위여 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윤 시장이 살펴본 광주시의 재정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게다가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예산에다 광주 U대회 운영·시설비, 2019세계수영선수권 개최, 군공항 이전, 지하철·시내버스·제2순환도로 재정 보전 등 매년 빚을 내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구조였다.

여기에 2호선 건설에 따른 최대 1조원 안팎의 시비 부담, 개통 후 운영 적자 부담 등은 미래세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다

왔다.

특히 2호선이 개통되는 2025년이면 광주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이은 승용차 통행량 감소 등으로 도로교통 환경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시민시장’이란 타이틀이 붙은 윤 시장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2호선 건설보다는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올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윤 시장이었지만 과거 일부 권위주의적 자치단체장처럼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광주의 어려운 (재정 등)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이 2호선 건설을 원했다. 또한 부족한 예산 등은 시장과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해결해 주길 주문했다.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광주시장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호선 건설 재검토가 남긴 의미와 과제는 =윤 시장의 말처럼 2호선 재검토를 통해 광주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환기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게 됐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

평가다.

다만 재검토 과정을 통해 2호선 건설을 반대해 온 일부 시민 사회단체와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은 과제로 남게 됐다.

막대한 예산 확보도 난제다. 특히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조 조성, 국립 문화전당 관련 지원 사업, 군 공항 이전, 시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소모성 사업들의 지원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윤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해 왔던 소의 계층 지원 사업, 비정규직 지원, 각 동네별 민원·속원 사업 해소 등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 시장은 “예산 지원이 절실한 일이 산더미다. 수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많은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일도 너무 많은데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게끔 밤잠을 설치 정도”라면서 “시민을 위해 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25년까지 구간별 3단계 공사 정거장 44개 1조9053억원 투입 전국 첫 친환경 저심도 도시철도

어떻게 추진되나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오는 2025년까지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60% 정도 진행된 기본설계를 20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해 2016년부터 1단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체 41.9km구간에 정거장 44개, 차량(주박)기지 2개소 등이 들어서며 총 1조 9053억원(국비 1조1432억원·60%, 시비 5716억원·30%, 지방채 1905억원·10%)이 투입된다. 건설 예산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신설 정거장 44곳은 상무중앙로~상무대로~운천로~금화로~월드컵서로~회재로~대남대로~서문대로~필문대로~서암대로~우치로~천지인로~설죽로~양일로~하서로~임방울대로~하남대로~상무중앙로를 따라 개설될 예정이다.

건설 공사는 3단계에 걸쳐 차량기지~시창역~광주역(1단계·공사기간 2016~2019년·17.06km), 광주역~수원~유덕역(2단계·2019~2022년·20.00km), 백운광장~효천역(3단계·2022~2024년·4.48

km)으로 진행된다.

다만 2호선 건설 공사로 백운광장에서 조선대까지 2.3km의 ‘푸른길’ 중 77%에 해당하는 1.77km가 훼손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구간은 일부 노선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방식은 지상 고가 경전철 방식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공해 등을 유발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저심도(지하 4~9m) 도시철도로 전환됐다. 다만 저심도 방식에 대한 사례가 없는 만큼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또한 실시설계를 거쳐 신규 정거장의 정확한 위치와 역이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형 암반 등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한 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거장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서 내의 정거장 위치(표)는 대략적인 위치로, 광주일보의 자체 분석을 통해 정거장 예정지 인근 대표 건축물을 임의로 표시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 앞에 정거장이 들어선다는 의미는 아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일지

2002년 10월	2호선 기본계획 승인·고시(국토부) 도심순환선(연장 27.4km, 지상고가, 사업비 1조 3375억원)
2005년 5월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KDI) L=22km, 사업비 9444억원 경제적 타당성 있으나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요구
2011년 11월	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국토부) 도심순환선(연장 27.4km)→확대순환선(연장 41.7km)
2013년 1월~2015년 5월	기본설계 용역
2014년 6월	2호선 등 긴급현안 특별 TF팀 구성(윤장현 시장·인수위) 2호선 건설방식 재논의
2014년 7~9월	윤장현 시장,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지시 2호선 타당성 검토 태스크포스(TF) 발족 및 4차 회의
2014년 11월 9일	윤장현 시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2호선 건설 연기론 첫 제기
2014년 11월 23일	2호선 건설 여부, TV토론회
2014년 11월 24일	광주시의회 12명, '2호선 건설' 요구 기자회견
2014년 11월 28일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개최, 시민의원 다수 '2호선 건설' 요구
2014년 11월 30일	윤장현 시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2014년 12월 1일	윤장현 시장, 광주시의회 의장단 조찬 간담회 윤장현 시장, 기자회견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원안 건설' 발표

“원안 추진 환영”...시의회 예산 심사 재개

윤장현 광주시장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결정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결산 심사 일정을 잠정 보류했던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광주시 예산 심의를 오는 4~5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애초 1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의 예산결산 심사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결정 이후로 미뤘으나 이날 윤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4~5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27일 윤 시

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를 조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당초 예정된 1~2일 예산심의를 연기하기로 했었다.

한편,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은 광주시가 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장현 시장이 2호선 건설을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단을 내려 주신데 대해 환영하며 이제는 갈등과 논란을 접고 2호선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www.gist.ac.kr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비상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광주과학기술원 특강
2014. 12. 5 (금) 16:20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노벨상 수상자가 본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 and Entrepreneurship in a view of the Nobel Prize-winner, Dan Shechtman

-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
-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 노벨화학상 수상(2011)

※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
리스트 파워 프로그램을 2015년 3월 부터 운영합니다.

- 교육내용: 기업가그리고 정신, Business Producing 및 아이비게션, 기술 사업화, 사업전략 및 글로벌 전략,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사업관리, 마케팅 및 협상
- 사업내용: 창업희망자 교육 및 기업가 양성, 시장분석 및 타당성 검토, 사업자문 및 컨설팅, 경쟁전략 및 글로벌전략,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사업 교육
- 대상: 교수·전문가 창업, 은퇴자 창업, 연구원 및 기술 창업, 중·고등학생/대학(원)생/일반인 및 주부창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번지 / Tel: 062-715-2792 / E-mail: maska3296@gist.ac.kr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